

◆교회목표◆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 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 중 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중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신성종 편집인:오태희 편집국장:조선근

'93 하기 농어촌 전도대 파송

'구원은 오직 예수, 전도는 나의 사명'

오늘 저녁 파송예배, 8월 2-5, 9-12일, 총 17개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딤후 1:14)는 말씀을 올해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사 52:7)는 그리스도의 칭찬을 향하여 전체 23교구 161개 전도지회(미주지역 중헌교회의 위탁교회 포함)가 매달 150여개의 농어촌 교회 및 선교기관과 군·경·교도소 등 특수기관을 전도위원회를 통하여 도우며 복음의 복된 발걸음을 걷고 있다.

그중에 이번에는 전도위원회 농어촌 전도부의 사업 일환으로 17개팀이 온 천하에 다

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좇아 1993년 하기 농어촌 전도대를 파송하게 된다. 이 전도대는 1차 파송이 8월2일부터 5일까지, 2차는 8월9일부터 12일까지 두 차례 파송된다.

오늘 저녁 찬양예배에서는 각 교구와 교육기관에서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이 전국 17개 지역으로 각각 파송받는 파송예배가 진행된다. 오늘 파송받는 대원들은 농어촌 현지 교인들과 합동으로 각종 전도활동을 통한 지역복음화와 교회 부흥에 협력하게 되며 각 전도팀은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의 사명을 다

하기 위하여 주재 성구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는 말씀과 '구원은 오직 예수, 전도는 나의 사명'이라는 표어와 주재찬송으로 '부름 받아 나신 이 몸'을 합창하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찾으며 한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로 오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땀을 흘리게 된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열을 피할 수 없는 논과 밭으로 찾아가 농약도 치고 김도 매고 축호전도를 하고, 밤에는 사람을 강권하여 주님의 집을 채워 은혜로운 부흥집회를 진행하며, 미리 교육받아 훈련된 주일학교 교사들은 짜여진 일정에 따라 '소망의 나라'라는 제목하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여 새 생명의 구원의 운동으로 하나님을 만드도록 결심시킬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파송되는 전도대원들을 만나 보면 한결같이 2000년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파송하신 제자들의 전도대를 생각하면서 미자립 농어촌 교회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궁극적으로는 전국 마을 마다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복음화된 통일 조국과 민족 전체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무장하고 있다.

또한 대원들은 주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땀과 노고와 지혜를 그곳에 쏟고 돌아오기 위하여 헌신적인 투자와 복음의 정열로 무장하며 전도전략과 훈련을 하고 있다.

이를 돕기 위하여 전도위원회는 내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자는 캐치 플레이를 걸고 농어촌 교회를 더 많이 도울 수 있도록 예년보다 더욱 세밀한 준비를 하여 이미 성경학교 교재를 만들어 배포하였고 필요한 노

원로목사·당회장 동정

신성종 목사

· 7월 29일 비디오 선교회 실행위원
회 참석

래를 가르치고 울동을 준비하였다.

7월 24일(토)에는 전도대원 훈련 및 기도회를 가졌으며 7월 31일(토)에는 각 팀의 지도교역자 인솔하에 기도회를 가지며 파송전 최종 점검을 하게된다. 아울러 이번에 파송되는 93하기 농어촌 전도대를 위하여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농산물 먹기 운동'의 회원들이 되어 간접적인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충현기도원에서 8월 9~13일

여름 산상성회 개최

강사에 김창인, 나겸일, 유창무 목사

충현기도원은 오는 8월9일 저녁부터 13일 새벽까지 3박4일간 기도원에서 여름산상성회를 열기로 했다. 모든 교회학교가 여름수련회를 실시하여 새로운 신앙자세를 확립하는 기회로 삼고 있는데 반해 일반 성인들을 위한 여름수련 프로그램이 부족한 편인데 금번 산상성회는 그런면에서 일반 성인 성도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8월9일(월) 저녁부터 숙식을 하며 13일(금) 새벽까지 모일 산상성회의 강사는 김창인 원로목사, 나겸일 목사(주안장로교회 담임목사), 유창무 목사(충현기도원)로 8-10일은 김창인 원로목사가 11일(수)에는 유창무 목사, 12일(목)에는 나겸일 목사가 저녁부흥회를 인도하게 된다.

숙식 및 자세한 사항은 충현기도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0347) 64-4425, 4472

하기농어촌 파송 전도대 현황

파송교회	주 소	교역자	파송기간	인솔교역자
금매	경북 군위군 효령면 금매리	이재식 전도사	2차	김광국 목사
천곡	강원 영월군 북면 문곡2리	권현도 전도사	2차	김희수 목사
대신총현	경기 여주 가남 대신 3리	홍익표 목사	1차	장경철 목사
양동섬실	경기 양평 양동 석곡리	유원열 목사	1차	조운재 목사
전동	충남 연기 진동 노장3리	한익수 목사	1차	박정규 목사
우정	경기 화성 우정 화산5리	이태곤 목사	1차	장봉생 목사
좌석	경북 영풍 단산 좌석 147	황법남 목사	2차	이인우 목사
안계동부	경북 의성 안계 토매2리	신종국 목사	1차	홍창민 목사
이천	경북 달성 다사 이천동 541	박 형 목사	2차	김수상 목사
반석	강원 원주군 반북동	이홍재 전도사	1차	한용관 목사
서머나	충남 논산 양촌면 신기2리	김순영 전도사	2차	김용기 목사
봉정	강원 정선 북면 봉정리	이중하 목사	2차	이중대 목사
샘물	경북 의성 단밀 샘물2리	신도식 전도사	2차	이홍성 목사
송계리	강원 정선 임계 송계1리	배태환 전도사	2차	정광옥 목사
모도	전남 완도군 청산면 모도서리	문정남 전도사	2차	성봉환 목사
춘천소년원		박양덕 전도사	2차	조동원 목사
NMC전도대	부산, 마산			이병각 목사

장로수련회 마쳐

장로수련회가 지난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간성읍에 위치한 동해교회에서 열렸다. 금번 장로 수양회는 군복음화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2박 3일간 실시한 동수련회 기간중 첫째 날인 15일에는 육군 00사단의 사단장 이하 장·사병 약 1,000명이 간성 학생체육관에서 신성종 목사의 전도 강연을 듣고 약 60여명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그날 밤 동해교회의 집회에는 1,000여명의 군인과 군인가족들이 모여 은혜 충만한 부흥회를 가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사단장과 군목은 많은 용기를 얻고 큰 격려가 되었다고 감사했다.

한편 이 기간 중 장로들은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직접 살펴 보면서 통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였다.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열심이 알알이 익어온 반세기의 열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6.25의 폐허 위에 굳건한 말씀의

반석을 놓으시고 신실한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충성스런 헌신으로 내실있게 키워주신 불혹의 성년, 중헌교회 지난 세월 겪어온 온갖 값진 체험은 우리의 소망을 더욱 굳게하는 믿음의 간증이 되었고, 21세기에 복음의 꽃을 피워나갈 우리의 저력을 길러 주었습니다.

이제 중헌교회는 세상 속에 흠어져 약동하는 교회로서 국민의 대다수가 예수 그



□ 중헌 40년의 의미 □

축복의 40년, 오늘의 중헌

김 천 채

(장로, 원어교육부 부장)

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며, 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생활신앙'을 정착시켜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할 영광된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밖으로는 전문인 해외선교 뿐만 아니라 평신도 선교를 최대한 확대하여 모든 교인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총력해외선교에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아

할 때입니다.

나이가 모든 교파와 교단의 장벽을 없이하여 이 땅에 교회일치를 이루고, 조국통일 이후에 전개될 모든 변화를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우리 각자는

겸손히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함으로 이 영광스러운 사명에 항상 깨어 있는 성도가 됩시다.

교회설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삼 교회의 의미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 위로 가셨습니다. 소위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헬몬산이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 세 제자들에게 천국의 영광을, 주님의 귀한 영광을 보여주시고 있을 때 산 밑에서는 간절병에 걸린 아들을 두고 있는 어떤 사람이 아홉 제자들에게 그의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방법을 썼는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 기도도 하고 안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공하지 못했는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낙망하고, 실패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큰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연고입니다. 그래서 이시간에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믿음이 적은 연고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우리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찾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 아홉명의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

첫째로 목자되신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실패를 한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다 양입니다. 양의 특징은 약하고 무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은 절대로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도 없고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홉 명의 제자들은 목자되신 주님과 함께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비록 주님과 함께 지리적으로는 함께 있지 않더라도 그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리적으로만 따로 떨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도 주님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들이 실패한 첫번째 이유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7절에 열 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저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나 여러분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땅에 보내주셨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간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능력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17절). 또 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은밀한 죄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불평과 원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권력에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신의 결여입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 전체를 주님에게 내어 바칠때에, 헌신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셋째로 믿음이 적은 연고입니다. 20절에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전혀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때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기도 했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이 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처음부터 아주 큰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씨앗과 같은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을 가지려면 이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지 않고 앉은뱅이 신앙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씨앗과 같은 믿음을 키워야 될 텐데 키우지 아니하고 땅속에 묻어 두고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문제점은 간절병에 있었습니다. 간절병은 에피렙시아(epilepsia)라고 하는 병인데 이 간절병의 특징은 발작을 하는 것으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간절병은 유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유전과 무관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만 간절병 환자의 자녀가 다 간절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뇌에 손상이 생겨져서 뇌 기능의 장애가 생기고, 동맥경화증이 일어나면서 간절병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러나 여기 본문 1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오니라"때로는 귀신에 들려서 간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간절병은 갑자기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게 만듭니다. 옆에 붙어있든지, 위험한 것이 있을 때는 굉장히 위

충현강단



믿음이 적은 연고라

(마 17:14-20)



신 성 종

<목사·당회장>

협하기 때문에 금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곤란한 것은 발작이 일어날 때에 보기가 참 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적은 연고로 이 간절병을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아, 그렇습니다' 하는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지, 정, 의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창조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2. 본문의 교훈과 믿음을 증진시키는 방법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은 능력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과 함께 가지만 하면 능력은 나타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는 두 나라(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이 사탄의 나라를 붕괴시켜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사탄의 나라를 붕괴시켜야 되는데 사탄의 나라를 붕괴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열렬한

기도와 산 믿음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본문과 평행 구절이 되는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지 않거나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매어달려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되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이 생겨집니까? 믿음을 증진시키는 방법은 말씀(로마10:17), 기도, 금식(자기 부정)입니다.

3. 결 론

본문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

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 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말씀을 이 시간의 모든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이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에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좀처럼만 할지라도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미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음을 그냥 그대로 간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역사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수백억 되는 통장을 우리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은행에 가서 도장을 찍고 돈을 찾아와서 그 돈을 써야 거기에 돈의 효과가 나타나듯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였는데 산이란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다 생각되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문제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문제이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이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산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바로 이 산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서 멀리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산들이 다 옮겨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경제신학

글

지난 선거 때 어떤 기업인 출신의 후보자가 아니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말이 많냐고 말했다고 해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돈 문제요 경제 문제인 것 같다. 그런데 기독교인 가운데도 돈 문제, 경제 문제를 바로 하지 못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기 한이 없다. 불신자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신자들이 돈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래도 경제신학이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면 바른 경제신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것의 소유자는 하나님 이시고,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여 불과하다는 원리이다. 사회적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가 벌었으니 내 것이란 착각에서 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리자로서 충성할 뿐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글 / 신 성 종 목사

서울 떠난지 19시간. 비행기를 두번씩이나 갈아 타면서 밤으로의 긴 여로를 달려 뉴욕의 라파디아 공항에 도착했다. 지금쯤 서울에선 3부예배를 드릴 시간이다. 마음속으로 소리를 모아 찬양을 부른다.

6월27일, 주일 아침이다. 시차 때문에 잠을 설치 우리들은 맨하탄에 있는 순복음뉴욕교회에 도착, 예배와 찬양을 드렸다. 이곳 순복음교회는 한국에 있는 순복음교회와는 다른 종파로 퀸즈에도 교회를 갖고 있었다. 당회장 김남수 목사님은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을 맡아서 할렐루야대회를 주관하고 계셨다.

퀸즈순복음교회에서 성정껏 준비한 비빔밥으로 점심을 먹었다. 환한 웃음으로 따듯이 맞아주는 교회분들을 보며 주님안에 한 형제임을 다시 느꼈다.

허드슨강을 지나 뉴욕 시내에 들어섰다. 허드슨강가에 있는 공장들은 경제공황으로 파업했던 1930년대의 이곳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브룩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라는 영화가 떠오를만큼 저저분하고 어두웠다. 1900년에 만들어졌다는 이 도시에는 곳곳에 공동묘지가 넓게 자리잡고 있어 미국인의 정서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다. 게이들이 페레이드를 벌이고 있어 교통이 막혀 있다는 안내원의 말에 정말 우리가 미국에 왔구나 하는 표정들이다.

카네기홀에 도착했다는 안내를 듣고 사방을 둘러 보았지만 그럴듯한 건물은 보이지 않았다. 101년전에 완공했다는 카네기홀은 일반 빌딩과 조금도 다른 없는 모습이었어서 예술의 전당 같은 모습을 연상하던 우리에게 정말 생경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홀안에 들어선 우리는 고전적인 실내 분위기에 압도 당하고 말았다. 외국영화에

미주선교찬양여행을 다녀와서(1)

카네기홀 공연

최상을 드리기 위한 최선

원 용 숙

(집사, 아멘 찬양대원)

서 보았던 귀부인들의 고상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하다. 올림이 좋은 음향효과를 느낄 수 있는 홀에서는 참가 9개팀의 리허설이 시작되었다. 미국참가팀들의 찬양곡은 상당히 밝고 화려하고 발랄한 느낌을 주는 반면에 우리는 장엄하고 고전적인 찬양곡들이었다.

리허설을 마치고 대기실에서 간단한 도시락으로 저녁을 했다. 피로와 졸음이 밀려와 대원들은 지쳐 있었다. 어디든지 몸의 한 부분이 땅에 닿기만하면 꾸벅꾸벅 조는 모습들이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다 못한 김영

준 집사님은 우리를 모아 연습을 시작했다. 모두들 힘이 들어 불만스러웠지만 리허설에서 느낀 부족함과 긴 여행으로 탁해진 목소리를 가다듬기 위해 줄린 눈을 비비며 연습에 임했다. 하지만 연습을 해야겠다는 건 마음뿐이었고 몸은 젖은 솜뭉치처럼 찾아들기만 했다. 지휘자님은 우릴 깨우기 위해 특유의 방법을 쓰셨지만 감겨오는 눈꺼풀은 주체할 수가 없었다. 졸음 중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최상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 하자는 지휘자님의 간곡한 말씀에 우린 큰 은혜를 받았다.

3000석의 카네기 홀을 가득 채운 교도들은 고국에서 온 우리들을 뜨겁게 환영했다. 이제까지의 피곤과 짜증도 잊은 듯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기 위해 지휘자와 혼연일체가 되었다. 우리의 찬양이 끝나고 출연한 1,100명 모든 찬양대가 한무대에 서서 이관섭 장로님의 지휘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렀다. 카네기홀에 울려 퍼지는 힘찬 할렐루야로 93미주성가제는 막을 내렸다.

6월28일 버팔로를 향해 달리는 고속도로는 끝까지 뻗어 있었다. 숲이 우거진 작은 공원에서 준비해간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었다. 공원에는 개의 출입을 금하는 'No, pets'란 표시가 있었고 개를 데리고 여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개를 차에다 두고 내리는 것을 보며 미국인의 질서정숙을 다시 한번 느꼈다.

우리 여행의 제일 큰 문제는 화장실인것 같다. 공원화장실에 줄줄이 늘어선 대원들은 미국사람들은 왜 화장실을 조금밖에 안 만들어 놨는지 궁금해 했다.

다시 차를 달려 버팔로에 도착했다. 나이가가라가 살짝 보이는 야외 공원에서 이관섭 장로님은 대원들을 모아 놓고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다. "하는 영광 내 맘에 임했네..." 파란 잔디, 시원한 강줄기, 노을 지는 하늘... 대원들의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그렇게 예뻐 수가 없다. 천국에서의 찬양대는 저런 모습일거라는 생각을 했다. 그곳에 관광 온 외국인들이 신기한듯 모여들어 함께 어깨춤을 추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한다.

모처럼 여유있는 저녁시간이다. 남겨두고 온 가족들에게 염서를 썼다.

내일은 나이가가라를 보러 간다. 나이가가라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 지원교회 방문기 - 동해교회를 다녀와서 ●

열정 속에 담긴 진정

이 수 자

(집사, 루디아 19지회 회장)

할렐루야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꾼으로 삼아주신 루디아 전도회원(1,19지회)들은 6월28일 지원 교회인 동해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4월 21일부터 기도로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6월 중순부터 장마가 시작되었다는 일기예보가 우리를 근심되게 하였고 또 준비해야 할 위문품, 회원들의 건강, 교통편 등 모든 것이 연약한 전도회의 큰 기도의 제물이었다.

하루하루 기도를 쌓아온 회원들은 마침내 28일 새벽 일찍부터 준비를 하여 18명의 대원이 성봉환 목사님을 모시고 오전 7시에 출발하였다.

싱그러운 아침공기와 더불어 시야에 전개되는 산천초목과 구름으로 가리워진 회색빛 하늘은 다소 들떴던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 앉혔고, 목사님의 선창으로 부르기 시작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 이렇게 시작된 찬양은 금요찬양때 잘 훈련받은 찬양의 성도답게 찬양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설사이 없이 자연스럽게 2시간동안이나 계속되었

다. 이렇게 5시간 30분 동안 찬양과 대화 속에 보내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우리를 마중 나오신 해군 제○함대 군목 류효근 목사님을 1년만에 반갑게 상봉하게 되었다. 언제나 단정하신 모습, 진급하신 계급장, 더욱이 성 목사님과 10년전 군목시의 절친한 선후배사이서서 훨씬 분위기가 좋고 화기애애한 시간이었다.

12시 30분에 미리 준비된 점심식사를 맛있게 먹고 은혜의 시간을 기다리는 장병들과의 시간을 가졌다. 1지회 회장의 기도는 한나의 간절한 호소처럼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였고 회원들의 '주님 내게 오시면' 찬양이 저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함을 그 얼굴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다. 성 목사님의 설교는 군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신앙으로 극복하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힘있는 말씀이었다. 그들의 예배드리 는 모습은 신령과 진정 그 자체였다.

부대장님, 중대장님 모두가 신앙인으로 이 부대는 늘 하나님이 지켜주는 승리의 깃발이 나부끼는 부대로 윗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목사님의 수고로 55%가 기독교인으로 성장하였다고 하신다. 예배 후에 우리가

준비해온 지원금과 간식의 전달식을 가진후 장병들과의 친교시간을 가졌다. 운동과 찬양 솜씨는 일반교회에서 느껴보지 못한 성령충만의 뜨거움과 함께 열성이 넘쳤으며 또 성경퀴즈를 척척 풀어나가는 그들의 성경 지식은 목사님의 신앙지도의 증거로 나타났다.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재배된 수박을 맛있게 대접을 받고 기념촬영을 한 후 우리는 다시 발길을 통해 교회로 옮겨 기도의 시간을 가진후 바다가에 정박한 함대를 볼 수 있었다. 바로 이곳이 목사님의 제1함대의 사역지인 곳이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기도가 필요하였던가? 그러나 이곳은 그야말로 바로 황금어장인 곳이다. 우리는 활동보고 겸 비디오 상영도 관람하면서 한눈에 그 사역을 알 수 있었다. 1년에 10% 성도가 성장하였다고 하신다. 황금어장에 어망을 던져서 베드로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현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둠이 깃들기 시작할 때 창가에 빗방울이 부딪혔다. 하나님께서 그때까

지 은혜를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돌아오면서 순간순간 기도의 시간과 찬양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시작되었으며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은 자, 요나 같은 자, 탕자같은 자가 이제는 주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니 이것이 웬 은혜인가?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바쳐 구속해주신 주님의 은총을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작은 헌신은 너무나 보잘 것 없는 것이 아닌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자! 성도여러분 우리 열심히 힘을 내어 주님의 일을 합시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갈 6:29)



토막소식

- ◆ 가브리엘 찬양대에서는 교회설립 40주년 기념 찬양예배를 위한 찬양연습을 시작하였다. 대원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바란다.
- ◆ 임마누엘 찬양대의 송정 음악캠프가 8월9일부터 8월11일까지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열린다.
- ◆ 유치부는 7월19일부터 21일까지 '예수님을 달아가는 어린이가 되자'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마쳤다. 김찬곤 목사의 '눈높이 교육'이라는 특강도 들었다.
- ◆ 초등1부는 성경학교를 감사속에 마치고 성경학교 평가회를 8월 1일 주일에 한다. 삼일동안 인형극과 만들기, 마지막 순서로 물풍선 나르기와 홀라후프 게임등을 통하여 협동심을 기르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수련회를 마쳤다.
- ◆ 초등3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의 생활이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은혜중에 마쳤다. 특별순서로 인형극과 에덴동산 만들기 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다.
- ◆ 중등2부에서는 사도행전여행이라는 내용

- 으로 오순절에 생긴일과 천국생활, 바울의 호송선 난파, 도피성, 고난의 생활, 죄에서의 자유 등의 코스로 성경을 여행하는 여름수양회를 마쳤다.
- ◆ 중등3부는 수양회 준비기도회를 7월 28일 수요일 저녁 예배후에 교육관 205호실(유치부실)에서 모인다.
- ◆ 고등부는 7월19일~21일의 '섬기는 미래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여름수양회를 가졌다. 두레마을에서의 봉사과 제암리교회에서의 신앙선배들의 노력과 신앙을 본받는 섬기는 미래의 지도자로서의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 ◆ 대학부에서는 NMC하기전도를 부산으로 7월 26~30일까지 떠나며, 남원으로 7월26~30일까지 남원으로 전도여행을 떠난다.
- ◆ 청년부는 지난 주일(7월18일) 제25기 면려회 총회를 열어 통합전 청년1,2,3부 면려회의 1993년도 전반기 사업보고를 끝내고 제25기 회장단을 선출했다. 회장에 송원석 형제, 부회장에 최낙은 형제, 조현경 자매가 선출됐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진행된 총회는 회장, 부회장 선출에 있어서 복수로 나온 회장 후보 가운데 한사람이 사퇴하고 부회장 후보가 사퇴하므로 회장, 남녀 부회장이 단일 후보가 되어 이 후보들에 대한 찬

- 반투표를 실시하여 압도적 표로 당선됐다. 이번 총회는 청년부가 새롭게 출발함에 따라 보다 화합되고 일치된 모습을 내외에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힘있게 면려회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 장년 1부는 7월17일 '시련을 넘어서 이긴다'라는 주제로 하기 수련회로 모였다. 갈릴리홀에서 모여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



- 다. 38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수양회는 가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장년1부에서는 교사를 모집한다. 이민으로 부족한 남1반 1명, 부부4반 2명(부부 교사), 신입반 2명으로 집사 및 교사양성부를 마친 사람이면 된다.
- ◆ 새가정부에서는 '가정에서의 자녀 신앙생활 교육'과 '자아문화에 따른 부부 만족도'라는 제목으로 이두란 전도사와 김희수 목사의 강의를 가졌는데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문제들이어서 많은 호응이 있었다.
- ◆ 실업인전도회는 7월20일 칼빈홀과 베다니홀에서 취업알선 및 구인을 위한 기도회 및 월례회로 모였다.
- ◆ 선교위원회에서는 선교기도지를 발행하며 권별(아프리카, 유럽, 남아시아...)로 기도

- 회를 실시하고 있다. 기도회는 교육관 107호에서 진행되는데 수요일에 1시간 전에 와서 함께 기도하면 된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기도회원의 자격은 우리교회에 등록된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 많은 관심과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있다.
- ◆ 군전도회는 7월30일(금) 월례회시 류효근 군목을 감사로해서 특강을 실시한다. 오후 6시 30분 나사렛 홀에서 모인다. 한편 93년도 군인 긴급대상자는 8월8일(주일)까지 군전도회에 신청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직원모집

본 교회 사무국에서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실 가족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1. 경비직(남○명) : 50세 전후의 몸과 마음이 건전한 성도
2. 사무직(남○명) : 상고를 졸업한 30세 전후의 남자로서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군필자

- * 각항 공히 세례교인으로써 본교인은 교구목사 추천서 타교인은 당회장 추천서, 세례교인 증명서·이력서(사진첨부) 제출요망
- * 제 출 처 : 사무국 총무과(☎ 552-8200, 교 402)

요청되어진 선교기도

선교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현지의 선교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무엇보다도 귀중한 기도를 현지에서 수시로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선교사님들은 이런 기도들을 부탁해 왔습니다. 요청되어진 선교 기도예 온 교회가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1.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

- 1) 개척된 67개의 원주민 교회, 원주민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 2) 개척된 오지 원주민 교회의 자립, 적자에 교회당의 건립
- 3) 신학교 사역이 규모 있는 준비, 더 많은 현지 학생들이 입학, 신학교 개점

2. 이준교 선교사(이집트)

- 1) 카이로 한인교회와 예급 복음주의 신학교, 자교회, 개척교회들과의 협력사역
- 2) 카이로의 200만 수난인을 위한 선교사역

3.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

- 1) 현지의 타국 유대인 선교기관과 협력사역을 통한 유대인들 복음을 전파
- 2) 성지연구소 교육의 사역들이 더욱 열매를 맺도록.
- 3) 성지연구소 건립, 한인교회 사역의 무용

4. 안석렬, 김창수 선교사(수리남)

- 1) 안선교사의 안식년 계획들의 규모 있는 진행
- 2) 안선교사의 안식년 동안 현지 김창수 목사의 사역
- 3) 성경공부, 노방전도활동, 원주민 전도활동, 선원 선교활동
- 4) 김창수 목사의 사역과 가족들의 건강, 현지적응, 언어혼란등이 어려움이 없도록

5. 김은혜 선교사(홍콩)

- 1) 중국 내지를 향한 TVRR 방송사역(TVRR 방송에서 매우 한 시간씩 한국말로 방송)
- 2) 새롭게 세워진 중국인 예배가 더욱 절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 3) 정수영 선교사와의 협력 선교를 통하여

한인 교회가 더욱 뿌리가 내리도록

6. 육호기 선교사(독일)

- 1) 외국인 박해 분위기 가운데 성도들의 안정과 가족들의 건강
- 2)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의 지속적 성장
- 3) 동구권 계속 복음 사역 활동, 현지 한인 선교사들과 협력, 성경반입 등 전도 프로그램들이 열매를 맺어 많은 영혼들이 교회와 연결되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7. 유병세 평신도 선교사(일본)

- 1) 부녀 성경공부, 초중고 학생 성경공부
- 2) 특산물 나누기 등의 교제를 통해 우상을 섬기는 주만들에 대한 전도
- 3) 의료진료, 심방활동을 통하여 복음을 심을 때 구체적인 열매가 맺히도록
- 4) 연로하신 선교사님과 사모님(이운호 권사)의 건강

8. 김형선, 한영자 평신도 선교사(뉴질랜드)

- 1) 문서선교, 외향선교, 도서대출등의 사역
- 2) 언어훈련, 현지적응, 교회활동이 속히 뿌리를 내
- 3) 가족들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9. 이기성 박정아 평신도 선교사(호주)

- 1) 현지적응, 언어적응, 교회적응등이 어려움이 없도록
- 2) 전도 활동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도록
- 3)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경건 생활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10. 김철영 평신도 선교사(일본)

- 1) 일본(오사카) 출국 준비가 순조롭게 준비되게 하옵소서.

11. 고은빈 평신도 선교사(캐나다)

- 1) 캐나다 다이로데에게 선교팀과 협력 선교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 2) 현지 적응에 기쁨으로 이루어지도록
- 3) 평신도 선교사가 아닌 전임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다함께
기도합시다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 신성종 목사님 : 7월 29일(목) 비디오 선교회 실행위원회 참석
2. 모든 불의와 죄악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3. 각 교회학교의 여름수련회에 큰 은혜를 주시고 세우신 강사님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소서.
4. 농어촌 전도대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5. 대입 수험능력평가시험(8월 20일)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소서.



여름 수련회

지난 주건중 교회학교의 대부분이 여름수련회를 마쳤다. 교회내에는 국민학생 부서들이, 중등부에서는 주로 총천기도원에서 모인 군인 여름수련회는 참석자들에게, 연혁 각양의 새로운 계기가 됐다. 새집은 충현기도원에서 모인 청년부 수련회에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특강하는 모습.